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1994. 5.

김 병 로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탈북자 실태	2
1. 탈북자 구분 및 규모	2
2. 탈북자의 남한행 여부	3
III. 러시아행 탈북자 발생경과	5
1. 북한-러시아 「임업협정」	5
2. 러시아 벌목노동자 선발과정 및 파견조건	7
3. 벌목장 현황	10
4. 탈북자 발생 계기 및 탈북동기	12
IV. 중국행 탈북자 발생경과	14
1. 탈북동기 및 탈북경로	14
2. 현 황	15
V. 탈북자 발생의 배경 분석	16
1. 사회주의권 붕괴와 중국개방	16
2.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	17
3. 경제난 심화	18
4. 가치관의 변화	19
5. 통제강화에 대한 반발	21
VI. 결론 및 전망	23

I. 문제제기

- 최근 러시아로 탈출하는 시베리아 벌목노동자의 증가와 중·북한 국경선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은신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북한의 전반적 사회불안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 탈북현상은 개인적 문제이기 보다는 폐쇄된 북한체제에 러시아와 중국 및 외부세계의 생활정보가 유입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띠는 것임.
 - 탈북시 직면할 개인적·가정적 위해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행하는 이유는 개인들을 외부세계로 밀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배출요인’(social push factor)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탈북자 발생의 실태와 탈북동기 및 탈북을 촉진하는 사회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진단해 보고자 함.

II. 탈북자 실태

1. 탈북자 구분 및 규모

- 탈북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러시아 각지로 탈출한 벌목·건설 노동자들(러시아행 탈북자)과 중국으로 밀입국·은신한 자들(중국행 탈북자)로 구분됨.
- 현재 탈북자의 규모와 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임.
 - 탈북자의 규모가 클 것이라고 추정하는 논거로는 탈출자의 신분이 외부로 알려진 사례는 실제 탈출자의 극히 일부분이며, 탈출을 가장한 금품갈취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규모의 탈출자가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함.
 - 반면 탈북자의 규모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것이라는 논거는 탈출자 1명에 대해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증언을 할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최근 북한의 경계가 강화됨으로써 탈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가. 러시아행 탈북자

- 러시아행 탈북자는 중노동과 열악한 벌목장의 작업환경 및

인권부재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러시아행 탈북자의 규모는 약 80~170명이며, 한국공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는 60~80명 선으로 추정됨.
 -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알마하타 등지의 한국공관 누계는 170여명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상당수 중복인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탈북자로 계산된 사람들 중에는 별목장에서 ‘외화별이’로 파견되어 나온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중국행 탈북자

- 중국행 탈북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 최근 2~3년 사이에 가속화되었음.
- 중국행 탈북자의 규모는 약 70~250명 정도이며 북경의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탈북자는 약 50~7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중국행 탈북자의 규모가 수십명 선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음.

2. 탈북자의 남한행 여부

- 탈북자들은 대부분 현지에 정착하여 장사나 사업에 종사하

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현지 ‘고려인’이나 ‘조선족’ 및 러시아인과 결혼 또는 위장결혼을 통하여 거주허가 취득을 바라고 있음.

- 탈북자 중 일부는 한국공관이나 기업체 및 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행 망명은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형제 및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가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남한행을 원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평가됨.

Ⅲ. 러시아행 탈북자 발생경과

1. 북한-러시아 「임업협정」

- 북한의 시베리아 벌목사업은 1967.3 구소련과 「소련연방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간 러시아 영토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협정」(임업협정)의 체결로 시작, 1991.8.8 러시아와 재체결되었으나, 러시아측의 인권문제 제기로 1993년 12월 말 효력이 만료되어 현재 6개월간의 시한부 계약상태에 있음.
 - 러시아 외무부가 1993.6.24 각서를 통해 “199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벌목협약이 러시아의 법률과 러시아가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에 맞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북한에 통보함.¹⁾
 - 벌목장 주변 러시아 주민들의 재계약 반대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임업협정」 재계약(1994~1996)을 위한 북한·러시아 양측 회담이 1993년 12월과 1994년 2월 두 차례 평양과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결실이 없었음.
 - 러시아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새 협정에 “북한은 자국민의

1)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159호, p. 18.

권리와 정당한 이익존중, 별목지역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 러시아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

-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러시아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여권휴대, 러시아 영내에서 이동의 자유인정 등 2개 조항을 명문화할 것과 필요할 경우 러시아 경찰이 별목장내의 치안유지 및 인권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인권옹호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최초의 주장에서 후퇴하여 러시아의 인권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러시아 정부측에 전달함.²⁾

○ 1994년 5월 12~13일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타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정례 외무차관회담에서 탈출 별목노동자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같은 시기 러시아측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임업협정」 재계약을 위한 3차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는 바, 양국은 시베리아 별목사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시베리아 별목사업에서 연간 2억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대신할 러시아 노동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 북한은 「임업협정」 재계약 지연문제와 관련하여 1994년 1월 12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재를 임업부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이춘석을 임명하였음.

-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벌채량의 35%(1986년까지는 40%, 현재 진행중인 재계약 협상에서는 28%를 러시아측이 요구)를 배당받고 있으며,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
- 만약 북한이 러시아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작업장 내의 인권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온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임.

2. 러시아 벌목노동자 선발과정 및 파견조건

가. 선발과정

-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 벌목장 노동자로 주로 범죄자거나 불량청소년들을 파견하였으나, 이들의 범죄, 작업장 이탈 등으로 소련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음.
- 북한은 1980년대 초 정책을 수정하여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당 조직생활과 근무태도, 직능별(직맹, 사로청 등) 조직생활 등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당의 추천을 받아 파견하기 시작하였음.
- 벌목노동자 선발은 매년 각 시·군당에서 공장, 기업소에 펀드(모집인원)를 내려보내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1년에 3천명 정도 선발하며 1개 군(현재 147개군) 단위
에서 20명 정도씩 선발하고 있음.
- 선발과정은 시 행정위원회 로동과와 시당 간부과, 도 행정
위원회 재소 담당 지도원의 면접, 재소 임업국의 면담, 중앙
로동국의 면접을 거쳐 도당 간부2과의 최종비준을 받음.
 - 개인의 자필이력서, 친척관계, 생활평가서, 신체검사서 등
을 제출하며 생활평가서는 직장,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동사무소, 인민반장의 비준이 필요함.
- 1985년 김정일이 평양시 주민생활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소
임업노동에 평양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라는 정책지
시가 하달된 이후 평양시 주민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30~
40%를 차지함.
- 지방인원은 시베리아 벌목사업을 관장하는 정무원 임업부
산하 임업총국이 있는 량강도와 자강도 주민들에게 우선권
이 부여됨.
 - 임업총국: 량강도, 자강도, 121호 임업총국
 - 임업관리국: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 임산·갱목생산사업소: 전국 100여개, 사업소 산하에는 작
업소가 있음.

나. 파견조건

- 별목노동자 파견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당원이면서 친척 중에 성분상 하자가 없는 자라야 하며, 비당원인 경우에는 성분이 좋고 조만간 당원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전체인원 중 당원의 비율은 약 80%임.
- 반드시 아이를 가진 가장이어야 하며 가족이 화목하고 부부 생활이 원만하여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활담보 증명확인서를 인민반 반장으로부터 받아야 함.
 - 해외에 친척이 있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별목노동자의 연령은 대체로 30대 후반이며 평균 학력은 고졸임.
 - 40~50대의 나이는 사람들도 파견되는데 이들은 대개 자동차운전수나 트럭운전수로 종사하기 위해서임.
 - 대졸 출신도 있으며 인민무력부 출신, 당출신도 있음.
- 별목노동자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군당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사상교육을 받아야 함.
 - 러시아에 나가서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려서는 안되며 러시아인에게도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도록 교육함.

- 복무기간은 3년이며 3년 임기 도중 어떤 이유(예: 부모상 또는 가족문제)로든 북한에 돌아가면 다시 파견될 수 없으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파견되는 사람들은 총 400명 정도(1개 작업소당 약 20명)로 많지 않음.
 - 3년 임기 후 재파견되는 사람들(이들은 ‘휴가’가는 사람이라고 부름)은 기술자이거나 뇌물을 주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로 이 두 부류의 비율은 50:50 정도임.
 - 3년을 채우고 휴가가는 사람들은 그 후 1년에 1회 40일 씩 북한방문 휴가를 받음.
- 별목노동자 선발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고 권력남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힘없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은 별목노동자로 파견되기 어려움.

3. 별목장 현황

- 북한의 시베리아 별목장은 하바롭스크에 개설된 임업대표부(임업부 산하)를 중심으로 제1연합기업소(하바롭스크주 체크도민 소재, 9개 사업소로 구성)와 제2연합기업소(아무르주 툰따 소재, 6개 사업소로 구성)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작업인원은 제1연합기업소에 10,000~12,000여명, 제2연합기업소에 5,000여명 등 총 15,000~17,000여명 정도로 추정됨.
 - 전체인원 중 절반은 별목현장 작업 노동자이며 나머지는

- ‘간접부문’ (운전수, 하차공, 목공, 안전원, 관리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벌목작업은 나무를 베는 산지중대, 나무를 운반하는 운재(운수)중대, 벌목 부산물로 펄프를 만드는 목편중대 및 교화,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벌목장에서 1년에 2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벌목장의 작업환경과 생활상태는 열악하며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상태임.
- 벌목장 주변 러시아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
 - 벌목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은 북한 내에도 잘 알려져 있음.
- 1990년 이후 목재생산량 감소 및 노동력 축소 에 따른 잉여 노동력을 작업장 밖으로 파견하여 ‘외화벌이’나 ‘부업’을 시켜오고 있음.
- 목재생산량이 이전의 400만m³에서 120만m³로 약 1/3이하로 감소되었음.
 - 벌목노동자들 중 당성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3개월에 1회씩 약 100달러를 상납하게 함.
 - 외화벌이에 동원된 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추산됨.
 - 외화벌이·부업의 종류로는 잡일, 노역, 사향노루·곰사냥 등에서부터 건설공사 작업, 인근 군부대 작업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4. 탈북자 발생 계기 및 탈북동기

- 탈북자 발생의 계기는 작업장 내의 인권부재와 작업장 외부로의 노동력 전용에 따른 것임.
 -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탈북 별목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력을 ‘외화벌이’로 전용한 체크도민의 제1연합기업소 소속임.

- 별목노동자들의 탈북동기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됨.
 -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화감상, 러시아 여자와의 연애 등 성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 변화,
 - 현지에서 채널이 고정되지 않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구입하여 남한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된 경우,³⁾
 - 외국생활을 통하여 경제난, 부패상,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 등 북한체제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경우,
 - 공금횡령, 업무상 과실 등 개인적인 비리 등임.

- 시베리아 별목장을 탈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극도로 폐쇄된 북한체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외국생활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문화충격’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러시아의 정치·사회·문화 속에서 기존의 주체사상 가치관이 아노미 상태로 전락함

3) 남한방송 청취를 통하여 남한 발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북한체제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되는데, 이들은 대개 사상범으로 몰려 한두차례 지적을 받다가 당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을 두려워하여 탈출함.

으로써 각종 비행이 발생함.

- 이들은 대개 문화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그에 따른 비행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탈출함.
 - 성문제와 관련된 탈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상영되고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화 및 비디오를 통하여 성문화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기 때문임.
 - 자유사회의 생활세계를 체험한 후 자유를 억제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조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함.
- 별목노동자 선발과정과 파견조건외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개인적·심리적 상태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폐쇄된 북한 통제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 줌.

IV. 중국행 탈북자 발생경과

1. 탈북동기 및 탈북경로

- 중국행 탈북동기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 성분불량, 문책, 지위하락 등으로 체제불만이 팽배한 경우,
 - 식량난으로 배고픔에 시달려 탈출한 경우,
 - 범법자로서 북한체제로부터 극한 피해를 당한 경우 등임.
- 그외 친척방문을 이유로 출국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와 호기심에 조·중 국경선을 넘어갔다 재차 탈출하는 경우가 있음.
- 중국행 탈북자의 성분은 대부분 조·중 국경선 부근과 함경도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며, 직업은 노동자, 농민, 군인 등임.
- 중국행 탈북자들은 대개 극심한 정치·경제적 피해로 인한 체제불만과 중국에서의 생활수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탈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 중국행 탈북자들은 주로 두만강 북동쪽의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지역을 통하여 도문, 훈춘, 삼합 등으로 탈출하며, 특히 두만강이 얼어 있는 겨울철에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 동안 북한은 경비태세를 강화함.

- 압록강 상류의 혜산과 만포 근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압록강 하류나 신의주 ↔ 단동과 같은 정규 교역통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현 황

- 중국행 탈북자는 대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일대와 장춘, 심양, 대련 등 만주지역의 대도시 및 흑룡강성의 목단강이나 하얼빈, 북경 등에 거주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에 동일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입장에서 남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1960년대에 북한과 맺은 밀입국자 송환 협정에 따라 국경탈출자에 대한 검거 및 인도에 대해 북한측에 협조하고 있음.
 - 중국 연길시 공안당국은 1994년 5월 초 연변에 진출해 있는 3백여 남한기업인들에게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돕지말라는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중국행 탈북자의 불안감이 높아졌음.
- 북한은 북한국적의 조선족 조교(朝僑)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북한에서 파견된 '특무' 활동을 통하여 탈출자 색출작업을 진행중임.

V. 탈북자 발생의 배경 분석

1. 사회주의권 붕괴와 중국개방

-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은 1990년 이후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한·소수교(1990.9)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별목노동자의 경우 소연방의 해체로 구소련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졌고 탈출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잠적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됨으로써 탈북이 촉진됨.
 - 시베리아 별목노동자들은 소연방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및 남한의 발전상에 대해서 북한내부에서 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됨.
 - 한·소수교로 별목노동자들이 러시아로 탈출할 경우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겨남.
-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1989년 이후 북한과의 경제·무역교류가 잦아짐으로써 중국의 경제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남한의 무역대표부 설치(1991.2) 및 한·중수교(1992.8)를 계기로 탈북시 남한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됨.

2.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

- 엄격한 주민통제에도 불구하고 방북교포, 외교관, 유학생, 무역업자 등 외국경험자들로부터 서방문물 및 정보유입, 남한의 발전상을 인지,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하여 제한적이거나 서서히 각계 각층에서 변화가 태동되고 있음.
 - 외부정보 유입과 사상해이로 인한 사회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1993년 10월 4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및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한 바 있음.
-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북한내에 채널이 고정되지 않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보급, 남한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남한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내부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살겠는가라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실제 소련이나 중국의 발전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체제에 대한 회의와 열등감을 갖게 됨.

3. 경제난 심화

-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자 목표했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음.
 - 북한경제는 실제로 1990년 이래 -3.7%, -5.2%, -7.6% 등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옴으로써 소비재 생필품은 물론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고 있음.
 - 북한은 1993년 12월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원인을 사회주의권의 시장붕괴와 국방력 강화에 돌린 바 있음.
- 북한은 그동안 산업화의 진척으로 물질생활의 향상을 기대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한 반면,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로 생필품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주민들의 사기는 저하됨.
 - 만성적 소비재 공급부족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암거래 성행 등 각종 사회부조리 현상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
- 북한당국과 당이 제시하는 목표가치의 비현실성과 주민의 좌절감은 체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상적, 심리적 동요와 함께 탈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가치관의 변화

- 생산관계와 계급구조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천리마 운동과 청산리 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제로 대표되는 동원체제적 산업발전 정책에 따라 물질적 유인보다 소비절약과 사상통제의 강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었음.
- 인민생활향상 정책(1984.2),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 (1984.8), 「합영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5~1986년부터 생필품 공급의 필요성 강조, 물질적 동기부여 정책 실시, 외국과의 왕래, 외국상품 및 외화의 접촉 증대 등으로 물질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짐.
 -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성과부진에 따른 2년간(1985~1986)의 ‘완충기’ 동안에 경공업 및 생필품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개인에 대한 물질적 동기부여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인민소비품 생산공장, 가내작업반 등 개인부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물질적 동기부여 정책과 생필품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지금까지 정치적, 당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배금주의 가치가 확산됨.

- 물질적 가치 추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돈을 벌기 위해 벌목노동을 지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됨.
 - 1985~1986년 경부터 “원동(시베리아)에 가면 돈벌 수 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확산됨.
- 실제로 벌목노동자의 월급은 1990년의 경우 150루블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 10배나 많은 액수⁴⁾이며, 1988년부터 임금을 100% 루블화로 지급함으로써 벌목노동 지원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⁵⁾
 - 1988년 이전에는 월급의 50% 정도를 루블화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북한돈으로 환산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지급하였음.
- 벌목노동자 지원의 경쟁율은 평균 50:1 정도로 치열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군단위로 20여명씩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한 벌목노동자 지원에 대한 열기는 매우

4) 1990년 말 공정환율이 폐지되기 전까지 1달러당 0.6루블(상업환율이 적용된 1991년에는 1달러당 1.7루블)로 이는 250달러, 즉 북한돈 500원으로 교환되며, 시장가격으로 당시 1루블은 북한돈 40원까지 교환되었는데 이 계산에 의하면 150루블은 북한돈 6천원에 해당함.

5) 벌목노동자들은 북한내 가족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할 수 없으나 루블화로 러시아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북한으로 가져가거나, 러시아에서 돈을 지급하고 지급 전표를 가지고 북한내 「재소물자공급소」에서 상품을 교환함. 북한 전역에 각 도마다 「재소물자공급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 일본제, 대만제 등의 상품이 있음. 「재소물자공급소」 이용은 부정부패가 심하여 선호하지 않음.

높음.

- 북한에서 러시아 벌목노동자로 다녀온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들의 ‘풍요로운’ 생활은 북한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됨.
- 벌목노동자로 파견되기 위해 뇌물수수가 성행함.
-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돈에 대한 가치가 크게 달라진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이 탈북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음.

5. 통제강화에 대한 반발

- 탈북현상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탈냉전의 개혁·개방 요소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북한 통제 메카니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북한사회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사회적 이동이 통제됨으로서 정치적·사회적 계층구조의 심화 및 경직화를 초래, 이에 반항심을 가진 정치사상범이 증가함.
 - 북한의 범죄 중 약 80%가 민족반역죄, 반혁명죄 등 각종 정치사상범임.
- 정치사상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굴욕감과 좌절감, 공포심을 체험케함으로써 탈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들은 강제이혼을 당하며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됨.

러시아 벌목노동자와 ‘외화벌이꾼’들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목표달성에 실패했을 때 탈북을 감행하는 이유도 자신에게 부과될 처벌의 가혹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임.

정치사상범으로 자신이나 가족원이 교화소에 수감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게되면 현실 사회주의 및 김일성부자 세습 체제에 반항심을 갖게되어 탈출함.

VI. 결론 및 전망

- 탈북현상은 개인의 비리나 비행 또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 조직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이를 촉발시키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내부의 사회적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음.
 - 탈북현상은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화충격, 경제침체, 돈에 대한 사회가치의 변화, 정치적 억압 등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임.
- 탈북을 자극하는 이와같은 북한의 전반적 사회환경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탈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경제난, 배금주의, 사상통제 등 북한의 사회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중국의 개혁·개방속도는 늦추어지지 않을 것임.
- 이러한 북한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탈출자에 대한 북한의 경계가 한층 강화된다 하더라도 탈북현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만약 북한에 외부세계 정보 및 문화의 유입·접촉이 확대된다면 러시아 별목노동자의 탈북과 같은 집단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탈북자들의 남한행 귀순은 거주국의 거주권 허가, 국외여행 허가 등의 외교적 협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속한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탈북현상은 아직 북한체제의 존속에 장애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북한사회의 동요를 유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화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統一情勢分析 94-1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5月 日
發行日 1994年 5月 日
